

# “설레는 코리안투어, 스폰서 대회 우승 욕심”

2019년 제네시스 대회 우승때처럼  
나를 내내 좋은 성적 내는게 목표죠



한국 남자골프 간판으로 우뚝 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2승의 주인공 임성재(24)가 2년 7개월 만에 국내 무대에 선다. 임성재는 12일부터 나흘간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에서 펼쳐지는 2022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세 번째 대회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3억 원·우승상금 2억6000만 원)에 출격한다. 코리안투어 출전은 역전 우승을 차지했던 2019년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2021~2022 시즌 PGA 투어 16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포함 통 10에 5번 이름을 올린 그는 현재 페덱스컵 랭킹 10위(1117포인트)에 올라있다. 세계랭킹 20위인 임성재는 자신의 서브 스폰서를 맡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19일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금융 챔피언십 개막을 이틀 앞둔 10일, 페럼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성재는 “오랜만에 코리안투어 대회에 출전하게 돼 설렌다. 스폰서 대회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다”며 “연습라운드로도 팬들이 지켜보고, 특히 친한 선수배 선수들을 모처럼 만나 좋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약 3년 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출전했을 때 우승을 했다. 이번 대회서도 나를 내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라며 신설대회이자 스폰서 주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연습라운드를 진행한 그는 “페어웨이 적중률이 중요할 것 같다. 파4 홀 같은 경우는 전장이 그리 길지 않다. 웨지샷이나 짧은 아이언샷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만 된다면 많은 버디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귀국한 지 5일 밖에 되지 않아 시차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지만 플레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항저우아시아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며 다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거쳐야하게 된 그는 아쉬움도 솔직하게 털어냈다. “아시아게임 개막에 맞춰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쉽다”며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시아게임 국가대표로 다시 선발된다면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다짐도 곁들였다.

PGA 투어 도전을 꿈꾸는 선수들을 위해 “미국은 연습 환경이 너무 좋다. 나이가 어릴 때 빨리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건넨 그는 골프 선수로서의 ‘버킷 리스트’에 대해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며 “언젠가는 꼭 한 번 마스터스에서 우승해 그린재킷을 입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결혼 계획을 묻자, 웃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10일 현재) 손흥민 vs 모하메드 살라 공격비교

손흥민	모하메드 살라
20 득점	22
20 필드골	17
13.11 기대득점	22.43
7 어시스트	13
64 기회창출	62

※ 예상득점 : 모든 슈팅 상황을 분석해 같은 상황에서의 평균 성공률을 적용한 값.

스카이스포츠 파워랭킹 톱5 (2021~2022시즌)

순위	성명(소속팀)	포인트
1	손흥민(토트넘)	71,587
2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71,295
3	알렉산더 아놀드(리버풀)	65,115
4	주앙 칸셀루(맨시티)	65,002
5	알렉스 리버풀	60,743

자료 : 영국 스키스포츠 홈페이지

## 손흥민 'EPL 누적 파워랭킹' 1위 득점선두 살라 2위로 끌어내렸다

시즌 전체 기대득점 13.11골보다 많은 20골 살라와 2골차...남은 3경기 역전 가능성 충분

손흥민(토트넘·30)이 모하메드 살라(30·리버풀)를 제치고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누적 파워랭킹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스키스포츠가 발표한 2021~2022시즌 EPL 누적 파워랭킹에서 7만158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리그 득점 선두(22골) 살라를 2위(7만1295점)로 밀어냈다. EPL 파워랭킹은 최근 5경기 득점·도움·차단·태클 등 35개 부문 활약을 바탕으로 책정한 점수로 순위를 매긴다. 이번에 발표한 순위는 시즌 전체 활약을 누적한 수치를 바탕으로 했다.

손흥민의 높은 공격 속도 덕분이다. 이번 시즌 20골·7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22골·13도움을 기록한 살라에 비해 전체 공격 포인트 수치에선 밀리지만, 페널티킥(PK) 골은 하나도 없다.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에서 20골 고지를 밟은 12명 중 PK 골이 없는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여기에 13.11골에 그친 시즌 전체 기대득점(xG)보다 많은 골을 뽑았다. 반면 살라는 22골 중 5골을 PK로 얻었고, xG도 22.43골로 현재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 손흥민은 기대보다 훨씬 잘 했고, 살라는 예상한 만큼 했다는 의미다.

스카이스포츠는 “살라가 시즌 내내 파워랭킹 1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3경기를 남기고 손흥민이 살라를 제치고 가장 높은 곳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의미 있는 기록을 썼지만, 손흥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이다. 19승5무11패, 승점 62의 토트넘은 현재 4위 아스널(21승3무11패·승점 66)에 밀려 5위에 랭크돼 있다. 레스터시티(3-1)·리버풀(1-1)로 이어진 험난한 2연전에서 1승1무를 기록했지만,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어 자력으로 순위를 뒤집기는 힘들다.

그래도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토트넘은 13일 오전 3시45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복련던 데뷔’를 치른다. 당초 1월에 열렸어야 할 경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선수단 구성이 어려웠던 아스널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순위경쟁이 한창인 시즌 막판 UCL 티켓을 놓고 불꽃 튀는 대결이 불가피하다. 토트넘이 이번 데뷔에서 승리를 따내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좁혀 아스널을 압박할 수만 있다면, 최종 2경기에서 충분히 역전할 수도 있다.

손흥민의 득점왕 등극도 기대할 만하다. “득점왕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팀의 UCL 경쟁”이라고 외쳤지만,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서 손흥민의 골이 필요하다. 남은 3경기에서 역대 유럽리그 소속 아시아선수의 한 시즌 최다골(2017~2018시즌 에데카르디비제·이탄 알리레자 자한바크 시·21골) 경신과 아시아선수로는 최초의 EPL 득점왕 등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0일 여자 페럼클럽에서 진행된 '우리금융 챔피언십' 연습라운드에서 어프로치샷을 넣는 임성재. 사진제공 | KPGA

## 우즈·미켈슨, PGA 챔피언십 나란히 출격

우즈, 마스터스에 이어 참가 신청 미켈슨, 디펜딩 챔피언 자격 출전

4월 마스터스를 통해 필드에 복귀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최고령 우승’ 신기록을 작성했던 필 미켈슨(미국)도 ‘자숙’ 기간을 마치고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둘은 10일(한국시간) PGA 챔피언십을 개최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GA)가 발표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언론도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둘이 나란히 한

무대에 선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PGA 챔피언십은 19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오를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2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던 우즈는 복귀 예상 시점보다 빨리 마스터스에 출전하며 전 세계 골퍼팬들을 열광시켰다. 비록 “우승하기 위해 나섰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4라운드 72홀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황제의 귀환’을 알렸다.

우즈는 마스터스가 끝난 뒤 “7월 디 오픈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1999년과 2000년 그리고 2006년과 2007년까지 4차례 우승했던 PGA 챔피언십 출전 가능성을 열어뒀



19일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 나란히 출전하는 타이거 우즈(왼쪽)와 필 미켈슨. 사진은 2018년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했을 때 모습이다. AP 뉴시스

고, 지난달 29일 대회 장소인 서던힐스를 찾아 연습라운드를 소화한 뒤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아 출몰하는 리브(LIV) 인터내셔널에 참여

할 의사를 내비치며 PGA 투어를 비난하다 역풍을 맞았던 미켈슨도 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미켈슨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50세 11개월 나이에 우승하며 역대 메이저 최고령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투어에 복귀하는 미켈슨은 6월 영국에서 열리는 LIV 인터내셔널 출전을 위해 PGA 투어 사무국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우즈와 미켈슨 외에도 이번 대회에는 마스터스 우승 등 올 시즌 4승을 거두고 세계랭킹 1위에 올라선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비롯해 온 람(스페인), 조던 스피스(미국) 등 총 155명이 출전한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에서 대상과 상금왕 등 4관왕을 차지했던 김주형(20)도 참가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가수 임재범이 7년 만에 복귀를 예고했다. 10일 소속사를 통해 “두렵고 조심스러웠다”며 복귀 소감을 전했다. 사진제공 | 블루씨드컴퍼니

## “아프고 또 아팠다”...임재범, 아내 잃은 아픔 딛고 7년 만에 활동 재개

넷플릭스 ‘테이크원’ 후배들과 호흡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봅니다.”

가수 임재범(60)이 돌아온다.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7년 만에 활동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처음으로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준비 중인 오리지널 음악 다큐 ‘테이크원’을 통해 후배들과 호흡도 맞춘다. 임재범은 ‘테이크원’에서 박정현, 유희열, 마마무 등과 함께 출연한다. 방송은 미정이다.

소속사 블루씨드컴퍼니 관계자는 10일 “임재범이 오랜 공백을 깨고 올해 새롭게 음악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준 팬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공식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열게 됐다”고 밝혔다.

1986년 밴드 시나위 1집으로 데뷔한 임재범은 카리스마와 가창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너를 위해’, ‘비상’,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히트곡을 내놓았다. 특히 2011년 가수들의 경연프로그램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너를 위해’, ‘여러분’ 등을 선보이며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인기를 바탕으로 2015년 데뷔 30주년 기념 음반을 발표하는 등 주가를 높였지만 2년 뒤 돌연 활동을 중단해 관심을 모았다. 배경에는 애끓는 개인사가 숨어 있었다. ‘나 가수’ 출연 당시 감상선 앞모임 투병 중이던 아내이자 뮤지컬 배우 송남영이 2017년 6월12일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견뎌내지 못했다.

임재범은 “참 긴 시간이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많이 아프고 또 아팠다”면서 “두렵고, 조심스러웠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으며 여러분께 마음의 손을 내밀어 본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